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근대문화’ 이미지 생산과 기억의 재구성*

군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지영**

목 차

1. 서론
 2. 근대항구도시 잔재와 보존
 3. 군산시의 ‘근대문화’ 이미지 생산
 4. 관광객의 ‘근대문화’ 체험과 소비,
재생산되는 이미지
 5. 기억의 이중성과 혼재성
 6.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식민지 이미지가 강한 근대건축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근대문화’ 이미지에 집중해, ‘근대문화’를 생산하는 주체의 의도와 이를 소비하는 관광객의 이해방식을 분석하였다. 군산시는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과거의 시간을 노스텔지어와 함께 상품화하고, 상품화된 ‘근대문화’ 이미지는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새롭게 재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역사의 수탈과 억압의 기억이 관광지의 재미와 즐거움으로 결합되면서 관광객의 ‘근대문화’에 대한 기억은 이중적이고 혼재된 기억으로 결합되면서 불안정한 개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문화’가 만들어지는 공간과 이미지에서 부딪히는 의미

* 본 논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근대문화’ 이미지 생산과 기억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밝힌다.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 박사후 연구원, E-mail: yangyang0203@hanmail.net

와 인식의 충돌 그리고 혼재된 기억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가 전유되고 재구성되는 문화적 기억의 층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 근대문화, 이미지, 문화적 기억, 노스텔지어, 도시재생

1. 서론

본 논문은 식민지를 표상하는 근대건축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해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군산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근대문화’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고, 관광객은 관광과 미디어를 매개로 어떻게 소비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대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생산하는 주체의 의도와 이러한 근대문화를 소비하는 관광객의 이해방식을 분석해, 이곳을 둘러싼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근대문화’는 어떤 기억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899년 개항된 항구도시 군산은 현재 ‘근대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군산은 지리적으로 금강과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발달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금강하구에 위치한 도시이다. 군산의 배후지에 있는 호남평야)는 김제평야와 만경평야에서 많은 쌀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게 주목받는 지역이었으며, 쌀 수탈의 거점항구로서 개항하게 된 군산은 이를 통해 식민지 전진기지로 도시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내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국조계지는 근대도시계획의 원형으로 군산 원도심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개항 당시 형성된 도시공간의 구조와 건축물들은 원도심의 장미동, 영화동, 월명동을 중심으로 그 원형이 현재에도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근대문화’ 이미지를 생산하는 토대로 사용되는 근대건축물이 집중되어 있는 군산 내항 일대와 원도심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많은 공간과 장소, 그리고 여러 도심재생 사업들이 ‘근대역사문화지구’²⁾ 안에서 행해졌

1) 호남평야는 동진강 유역의 김제평야와 만경강 유역의 만경평야를 포함해 부르는 명칭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평야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등 5개의 시와 부안, 완주, 고창 등 3개 군이 포함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본 논문에서 ‘근대역사문화지구’는 내항의 ‘문화벨트지구’와 원도심의 ‘역사경관지구’를 통칭해 사용하고 한다. 이는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수립된 ‘군산근대역사문화 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에 기초한 명칭이며, 이 연구지를 중심으로 ‘근대문화’와 관련된 사업과 정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으며 근대화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본 토대를 구축했다. ‘문화벨트지구’는 내항을 중심으로 수탈을 상징하는 관공서, 금융기관, 그리고 산업구조물과 같은 근대건축물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역사경관지구’는 일본인들이 거주한 조계지로서 행정기관, 상업시설,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해방 이후에도 원형을 유지한 채 많은 근대건축물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두 지구가 묶여 ‘근대역사문화지구’라고 불리는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군산의 ‘근대화’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하게 진행된 연구방법은 현장조사를 통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방법론은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위주체들이 공간과 장소를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산의 역사적 배경, 정책들과 제도들의 문헌연구와 자료조사 등 다양한 인류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근대역사문화지구’에서 ‘근대화’를 체험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 실제 현장과 온라인을 나누어 조사·분석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총 48명³⁾의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은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과 함께 수시로 질문을 추가하는 형태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과정과 함께 군산의 ‘근대화’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의 관계를 살펴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산을 상징하는 ‘근대화’가 기호로 소비하도록 군산시가 근대건축물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되어 어떻게 근대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형성된 식민지 잔재들이 국가등록문화재제도와 역사자원을 이용한 도시재생 정책에 의해 근대화유산으로서의 인식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유도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식민지 잔재로서 부정적 인식의 대상에서 근대화유산의 긍정적 인식의 대상으로 변화하면서 ‘근대화’의 이미지를 어떤 관점에서 소비하며 새로운 군산의 ‘근대화’로 이해하는지 파악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관광객은 군산시가 생산한 ‘근대화’를 어떻게 체험하고 이미지를 소비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근대화거리가 조성되면서 복원된 근대건축물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활용되었고, 일본식 가옥들이 집중적으로 개축되면서 근대경관이 재현되기도 하였다. 관광객은 ‘근대화’를 체험하려 군산을

3)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총 48명으로 다음 아래의 표와 같다.

방문하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은 사람들에게 ‘근대문화’라는 특정 이미지가 강화되거나 배제된 이미지를 소비하게 한다. 또한 ‘근대문화’의 체험과 이미지 소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광객의 기억은 과거의 근대가 혼재되거나 분리되면서 또 다른 기억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군산의 원도심에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화교⁴⁾문화와 해방 이후 들어선 미군기지로 인해 미군을 상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문화적 혼성을 드러내는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군산의 ‘근대문화’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층위의 흔적들과 기억들이 감춰지거나 배제된 채 ‘근대문화’

면담자	거주지	성별	세대	면담자성격	면담자	거주지	성별	세대	면담자성격
1. A	군산	남	50대	지역민	25. Y	강원	여	40대	관광객
2. B	서울	여	10대	관광객	26. Z	전주	남	20대	관광객
3. C	하남	여	20대	관광객	27. A-1	전주	여	50대	관광객
4. D	군산	여	50대	지역민	28. B-1	전주	여	40대	관광객
5. E	청주	남	30대	관광객	29. C-1	전주	여	40대	관광객
6. F	군산	여	60대	지역민	30. D-1	군산	여	50대	지역민
7. G	군산	여	20대	지역민	31. E-1	대전	여	20대	관광객
8. H	군산	남	60대	시관계자	32. F-1	하남	남	50대	지역민
9. I	군산	여	60대	지역민	33. G-1	군산	여	50대	지역민
10. J	군산	남	60대	시관계자	34. H-1	군산	남	60대	지역민
11. K	군산	여	50대	지역민	35. I-1	군산	여	20대	지역민
12. L	군산	남	40대	지역민	36. J-1	서울	여	40대	관광객
13. M	군산	남	70대	지역민	37. K-1	전주	여	60대	관광객
14. N	군산	여	50대	지역민	38. L-1	부산	여	60대	관광객
15. O	군산	남	40대	시관계자	39. M-1	군산	여	60대	지역민
16. P	군산	남	50대	지역민	40. N-1	전주	남	40대	관광객
17. Q	군산	남	60대	시관계자	41. O-1	군산	여	50대	시관계자
18. R	군산	남	50대	지역민	42. P-1	군산	남	50대	시관계자
19. S	군산	여	50대	지역민	43. Q-1	군산	여	40대	시관계자
20. T	서울	여	30대	관광객	44. R-1	안산	여	20대	관광객
21. U	하남	여	50대	관광객	45. S-1	안산	여	20대	관광객
22. V	서울	여	50대	관광객	46. T-1	부산	여	30대	관광객
23. W	경기	남	50대	지역민	47. U-1	부산	여	30대	관광객
24. X	전주	남	30대	관광객	48. V-1	진해	여	60대	관광객

4) 화교(華僑)는 객지생활을 하거나 임시거주의 의미가 담겨있는데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의미한다. 화교라는 용어는 1898년 일본 요코하마에 살던 중국상인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며 ‘화교학교’라고 부르는 데에서 유래한다(김중수 외, 2009: 213).

이미지가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산에서 많이 알려진 장소의 이미지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소비된다. 사람들은 수많은 이미지와 함께 간결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로 SNS에 군산의 ‘근대화’와 관련된 공간과 장소를 소개하고, 유사한 이미지들을 소비하며 재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토대로 군산시가 근대화도시를 표방하며 생산한 ‘근대화’ 이미지를 관광객들은 어떻게 소비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근대화’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의 간극을 살펴봄으로써 ‘근대화’의 이미지가 군산을 어떻게 기억하게 하는지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에게 재구성되는 ‘근대화’에 대한 기억을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시기를 경험한 우리에게 ‘근대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근대시기를 구분하는 것도 학문분야마다 그 해석이 다양하다. 군산시는 ‘근대’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근대화’를 도시의 이미지로 상징화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군산을 이미지와 기억이라는 키워드로 ‘근대화’에 관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바라볼 것이다.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역사경관은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을 미학적, 문화적 차원으로 다루면 부정적인 장소기억이 사라지고, 문화적인 상징경제로 전환되면서 역사적이거나 정치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한지은, 2014: 8). 즉 식민지 시기의 근대도시로 성장하게 된 군산에 대한 기억이 ‘근대화’라는 문화적 상징으로 전환되는데 있어 근대역사경관은 관광객에게 경험하지 않은 것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장소 기억의 심미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지점을 분석함으로써 군산의 ‘근대화’ 이미지의 상징성에 대한 의미 변화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화’ 이미지가 표출하는 식민지 공간과 ‘근대화’ 공간으로써 부딪히는 의미, 인식의 충돌과 혼재된 기억들을 분석함으로써 ‘근대화’ 이미지가 공식적 기억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또는 미디어 매체에 의해 그 의미가 전유되면서 재구성되는 문화적 기억의 층위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근대항구도시 잔재와 보존

1) 식민지 잔재에서 근대화유산으로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군산의 근대건축물은 해방 이후부터 철거 논의의 대상

이 되어 왔다. 왜냐하면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로써 식민지에 대한 기억은 식민지 잔재, 수탈과 억압 등의 부정적 인식을 떠올리는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부정적 기억에 대한 근대역사자원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은 근대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들에 대한 철거와 보존에 대한 대립으로 이어졌다(손은신·배정환, 2018: 22). 식민지를 상징하는 근대건축물들은 역사적 관점에서 민족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며 철거의 대상으로 강하게 주장되었다. 그리고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건축물에 대한 입장은 철거와 보존의 대립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군산의 경우 1994년 내항의 뜬다리 부두인 부잔교⁵⁾ 1기가 일제 잔재로 처음 철거되었다. 1995년에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일제 잔재물 철거식’이 개최되면서 보국탑·공자묘·자우혜민비·개항 35주년 기념탑 등 4개의 기념비와 탑이 철거되었고, 1997년에는 구 군산시청이 철거되었다(전재호, 2020: 113). 그리고 이어 군산경찰서, 군산국민학교(군산 심상소학교), 모더니즘 건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군산공회당 등이 순차적으로 철거되었다. 당시 군산 시의회에서는 “내항개발 및 일제 잔재물 처리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일제의 잔재 청산에 나섰다. 그리고 일제 잔재 철거와 지역의 고유지명 찾기에 대한 간담회와 함께 설문조사도 이루어졌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는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김영정 외, 2006: 265).

1995년을 기점으로 근대건축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도 있지만 식민지의 건축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가져왔다. 이러한 식민지 건축유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가져온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역재정의 일부를 책임져야 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즉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대상으로 근대건축물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것은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가 아니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전재호, 2020: 114). 둘째, 1998년 한일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반일감정을 약화시켰고 김대중 정부

5) 군산내항은 1899년 개항되었으며, 축항공사는 1905년 대한제국에 의해 시작되었다. 군산항 축항작업은 초기에는 대한제국이 자금을 대었으나 자금의 사용과 관리는 일본인이 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김중규, 2001: 305). 군산내항에 자리한 부잔교는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배의 접안이 힘든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인공구조물로, 바닷물의 수위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게 만들어져 접안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뜬다리 부두라고도 불린다(군산시).

의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과 함께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는 일본에는 한류붐이 한국에는 일본의 소설이나 영화, 만화 등이 인기를 얻었다(전재호, 2019: 136). 셋째, 1990년대 후반의 문화재 정책변화를 들 수 있다. 기존의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며 정부는 근대화유산을 보호하기 시작했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많은 건축물들이 소실되며 보호대상의 범위가 확장되기 시작했다(전재호, 2020: 114).

2001년 시행된 ‘등록문화재제도’ 도입은 지정문화재로 등록되기 어려운 근대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문화재단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근대화유산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을 말한다(군산시, 2007: 189). 근대는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또한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기로서 근대에 생성된 역사적 산물은 당시 시대의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결과물로서 의미와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2007년 군산의 근대화유산 현황을 처음 조사하기 시작하였는데 총6건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군산시, 2007: 37).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군산의 등록문화재는 총23건의 등록문화재가 지정되었다. 등록문화재의 증가는 근대건축물이 이제는 더 이상 철거해야 되고 없어야 되는 식민지 잔재의 부정적 대상이 아닌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근대시기의 유산들을 발굴하고 근대화유산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건축물들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과 동시에 군산시는 이를 통해 ‘근대화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토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2018년 근대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초로 선(線), 면(面)단위의 등록문화재를 지정하였다. 선(線), 면(面) 단위의 문화재 등록제도는 기존의 점(點)단위로 지정된 문화재들을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적이고 통일성을 가진 보존과 활용의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군락으로 묶인 역사문화경관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최아름, 2020: 98). 문화재청은 군산 내항 일원에 형성된 근대건축물과 산업유산에 대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하였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건축물 외에 1970년대에 세워진 산업시설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내항 역사문화공간에 지정된 근대건축물들이 밀집된 내항일대가 보존과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했고 인근의 근대건축물의 역사문화공간 체험이 사람들의 방문을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문화재청 홈페이지).

2) ‘근대역사문화지구’ 형성 이전 도시공간의 기억

군산시는 일제강점기 형성된 근대건축물을 복원하거나 일본식 가옥을 새롭게 재현하는 등 ‘근대문화’의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에 군산은 ‘근대문화도시 군산’이라는 도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얻게 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은 군산의 ‘근대문화’를 찾아 방문하고 있다. 군산에는 ‘근대문화’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기억의 층위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근대문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갔다. 따라서 ‘근대역사문화지구’가 형성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군산의 기억을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기억들이 사라지거나 배제되는지 또는 어떤 기억들이 소환되고 호명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군산은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호남평야를 배후지로 두고 이곳에서 철저히 쌀을 수탈해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항구도시인데, 내항의 행정지명이 장미(藏米)동인 것만 보아도 쌀과 관계된 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군산은 철저히 쌀 수탈 거점항구도시로서 당시 내항에는 엄청난 양의 쌀을 저장하는 창고들이 많이 세워졌다. 군산항에 지어진 많은 미곡창고는 해방 이후에도 많이 남아있었고 그 이미지에 대한 기억을 지역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여기가 많이 이렇게 변했지만 여기가 이제 쌀을 수탈해간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창고가 저쪽에도 쪽 서 있고 이 쪽에도 쪽 서 있고 저는 봤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본정통 그러면 이 건너편까지 그런 쌀 창고들이 가득 있었고 도로 건너편하고 지금 이 쪽하고(내항 일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죠”(F, 60대, 여)

“그때는 세관이 분명히 있었고요 감시소도 있었고 지금의 근대미술관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요. 일본 나가사키 군산지점(구 일본 제18은행) 기억이 나는데”(S, 60대, 여)

해방 이후 군산 내항의 모습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쌀을 반출하기 전 저장해놓았던 창고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세관, 금융기관과 같은 건축물은 한국정부가 물려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내항 일대의 근대건축물은 외

관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다. 면담자 S나 면담자 F처럼 현재 60대 후반의 지역민에게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군산항 자료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쌀을 쌓아놓는 미곡창고나 군산세관 감시소와 같은 근대건축물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 면담자 S가 세관과 감시소 건물을 기억하는 것은 1980년대 까지도 군산의 근대건축물의 원형이 많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근대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은 내항이 ‘벨트화사업’으로 경관이 변모되기 전까지 지역민들에게는 나가사키 18은행으로 불리었다. 군산이 식민지 도시였던 기억들은 ‘나가사키 18은행’, ‘히로쓰가옥’과 같은 명칭이 지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호명되면서 남아있다.

내항에서 제보선창 가는 길에 위치한 구 조선은행은 현재 근대건축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근대건축물이다. 구 조선은행은 해방 후 한국은행으로 바뀌었고 지점이 전주로 이전하면서 1953년 한일은행 건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후 예식장이나 나이트클럽으로 이용되면서 건물의 내부와 외관의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990년대 화재로 불에 탄 건물은 오랜 시간동안 방치된 채 도로에 흉물스럽게 남아있었다. 그 후 2008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군산시에서 매입하여 보수와 복원작업을 거쳐 2013년 근대건축관으로 재탄생되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구 조선은행건물이 “은행도 했었고요, 술집도 했었어요”라는 면담자 M-2의 기억처럼 현재 근대건축관으로 조성된 구 조선은행은 과거 1930년대의 이미지로 복원 되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군산 지역에서 은행, 유흥주점과 같은 다양한 기능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던 시간의 층위가 쌓인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근대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잔재나 식민지 잔재로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면담자 F-1은 권력기관의 역할을 했던 관청기관들은 “일제 잔재”로 다가오지만 거주지역의 일본식 가옥으로서 근대건축물은 일제 잔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군산의 근대건축물은 공공 기능을 행한 건축물과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있는 건축물이 식민지의 역사를 드러내는 근대건축물이지만 다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군산시가 근대건축물을 활용해 근대문화도시로 이미지를 변모시키는데 불과 10여년이 조금 넘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현재는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을 근대문화도시로 인식하며 방문하지만, 지역민의 기억에는 식민지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도시, 항구도시, 산업도시로서 일상 삶과 관련된 경제구조 안에서 군산을 기억한다.

지역민들은 이 외에도 명산동의 화교들이 많이 살았던 기억과 미군들을 상

대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던 영화동을 기억하였다. 군산에는 유독 중국음식점이 많은 편인데 이를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화교였기 때문이다. 군산 원도심에 대한 기억은 화교와 함께 또 다른 강렬한 기억이 있다면 영화동, 월명동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미국 군인의 모습이다. 이곳에 미군들이 많았던 이유는 군산에 미공군기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들의 소비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은 원도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8년 군산시 옥구군 미면에는 ‘아메리카 타운’이 조성되었다. 이곳은 미군을 상대로 외화를 벌어들였고 유흥·환락가의 장소로 소비되며 1980년대 후반까지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통행제한이 있었던 당시에 유일한 치외법권 지역으로써 호황을 누렸던 시기에는 하루 천 명이 넘는 미군이 이곳에 와서 유흥을 즐겼다(군산시, 1999: 270). 이후에 ‘아메리카 타운’은 ‘국제문화마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미군을 상대로 비공식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장소라는 이미지를 지우고 싶은 듯 ‘국제문화마을’로 포장되어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국제문화마을은 철거되었고 군산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던 현장이 이제는 기억에서만 남아있게 되었다.

‘근대문화’ 이미지가 형성되기 전 군산의 모습은 식민지도시, 항구도시, 산업도시로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던 도시였다. 그리고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화교문화,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상품들과 그들의 경제소비가 만들어내는 혼재된 문화의 기억들이 지역민들에게 많이 남아있다. 화교와 미군들에 대한 기억은 이제 군산이 근대문화도시로 조성되면서 사라져가고 있지만 군산 지역민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한 시대의 상징적인 기억들로 남아있다. 군산시는 일제강점기 형성된 근대건축물을 중심으로 ‘근대문화’ 이미지를 강하게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에 살고 있는 군산 지역민의 기억 속에는 군산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경험과 기억의 층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군산시의 ‘근대문화’ 이미지 생산

1) ‘근대문화도시조성’과 도시재생 전개

현재는 군산시가 근대건축물을 활용해 근대문화도시로 이미지를 상징화하였지만, 초기에 진행된 내항과 원도심 지역 활성화 정책은 뉴타운 개발방식의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지자체가 근대건축물을 지역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존가치와 활용계획을 가졌다가보다는 단지 관광개발의 한 요소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트화사업’에 참여한 면담자 J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의 군산시는 원도심의 근대건축물보다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컸다고 한다.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그곳에 관광단지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원도심은 새만금을 가는 길에 잠깐 머무는 장소로 기대했다고 한다. 따라서 중간기착지 성격의 관광지역으로 내항일대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차이나타운 개발계획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항과 원도심 일대에 중국, 일본, 미국거리를 조성하고자 계획했으나 단지 관광객유치만을 위한 계획의 부실함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이후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계획은 근대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7년 당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종합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의 표상이다. 이를 토대로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근대건축물과 가옥들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에 남아있는 근대건축물들은 오랜 방치로 인해 훼손되거나 파괴된 정도가 심한 건축물들이 많았고 일식 가옥의 건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나 가옥의 건립 시기나 건축물의 설계과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군산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실제 건축물의 심각한 현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군산시의 경관조례가 제정되었고 도시경관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근대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군산시는 원도심에 산재한 근대건축물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근대역사경관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2001년 시행된 등록문화재 제도로 인해 2003년 동국사가 처음으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5개의 문화재가 추가되면서 5년 동안 총 6개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그리고 2022년까지 17개의 등록문화재가 더해져 총 23개의 근대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등록문화재의 증가로 인해 군산시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또한 근대문화유산은 국가공모사업과 도시재생정책이 연계되면서 관광자원으로서 군산의 지역경제에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창작벨트화 사업’에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사업에 선정되면서 100억 원의 국비가

군산시에 지원되었고 근대역사경관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근대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원도심의 노후한 주택들의 정비사업과 같은 물리적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636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정부의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면서 내항 일대에 근대건축물들이 복원, 정비되었고, 근대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이 군산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변모시켰다는 점에 주목해본다. 특히 2011년 개관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근대’라는 특정 시기의 역사문화를 강조한 박물관으로 다른 지역의 박물관과 차별화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관광객들을 군산으로 불러들이는데 기여했다. 박물관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했으며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이 2013년 개관하며 군산은 근대문화도시로 사람들에게 강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에 있던 근대건축물의 복원과 정비를 통해 새롭게 재구성된 건축물이 이색적인 경관을 이루었다.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군산시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근대역사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군산시는 수 십 채의 가옥을 매입하였고 원도심 두 개의 블록에는 일본식 가옥들을 집중적으로 복원, 재현하였다. 또한 당시 원도심 전체에 노후한 건물들과 가로경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던 시기의 정책사업의 지원은 근대경관의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내항과 원도심의 근대역사경관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을 방문하면서 군산의 원도심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동네로 변하였다. 도시재생 선도 시범사업이 끝나갈 무렵의 군산시는 또 다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역사문화 중심의 콘텐츠를 활용해 쇠락한 지역들을 꾸준히 확장해가고 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최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재보선창에 ‘재보스토리 1899’이다. 재보선창에 새롭게 조성된 이 공간은 그동안 원도심과 내항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관광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군산시가 ‘근대문화’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들과 지원사업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 있어 역사경관을 전략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재생사업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근대문화유산이나 산업유산이 산재한 군산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문화재청의 역사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민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뉴딜사업의 방향과 일치하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2018년 시행된 선, 면 단위 등록문화재 제도의 변화와 함께 군산시는 다양한 형태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군산은 서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군산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사업과 같은 국가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지역이다. 따라서 군산은 항구도시, 산업도시로서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근대화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군산시는 ‘근대화도시’의 이미지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던 근대건축물은 근대화유산으로 보존, 활용의 대상이 되었고, 역사문화자원으로써 ‘근대화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건립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산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내항 인근의 일제강점기 형성된 관공서와 금융시설들이 근대화벨트 지구로 묶여 근대경관으로 조성됐고, 원도심 또한 집중적인 일본식 가옥의 복원과 재현을 통해 근대역사거리로 이미지를 바꾸어가기 시작하였다. 식민지의 건축물은 ‘근대화’라는 문화적, 예술적 색깔이 덧입혀져 재현되었다. 여기에는 등록문화재제도나 도시재생 선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정부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복원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군산의 도시재생은 근대경관이 밀집되어 있는 내항 일대와 원도심 중심으로 물리적 경관사업이 대부분 진행되었고, ‘근대화’를 앞세워 테마화 된 관광경관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역사, 기억의 소환과 ‘근대화’ 이미지 생산

군산시가 근대건축물을 토대로 ‘근대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식민지 역사를 소환해 ‘근대화’이미지를 생산함으로써 ‘과거’를 상품화하고 있다. 먼저 내항과 원도심의 ‘근대역사문화지구’에 집중되어 있는 근대건축물을 복원하고 활용하면서 ‘근대 공간’을 생산하고 있다. 군산시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재현하는 데 있어 ‘수탈과 저항’의 상징공간으로서 근대를 재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근대경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 정비사업을 통해 건물의 간판과 입면을 근대풍의 파사드를 활용해 획일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군산의 일제강점기의 시간은 1930년대의 과거의 시간으로 회귀하는 시간 여행마을로서 공간과 장소가 재구성되고 있다.

다음으로 체험투어 프로그램이나 축제 등을 활용해 ‘근대화’ 이미지를 생

산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과 일본식 가옥들은 물리적 외관에서 시대의 성격을 드러내며 이국적인 분위기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문학작품이나 영화,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 매체에 의해 식민지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군산시는 일제강점기 쌀 수탈을 목적으로 근대항구도시로서 발전된 전형적인 식민지 항구도시이다. 따라서 식민지 군산을 배경으로 쓰인 <탁류>, <아리랑>과 같은 소설에 등장하는 공간과 장소들이 상품화되며 관광체험프로그램으로 연결되고 있다. ‘근대문화’는 시간여행축제나 문화제 야행과 같은 축제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민지의 역사는 문화콘텐츠로 상품화되고 과거를 소환하여 낭만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근대 공간’의 물리적 공간 조성과 ‘근대문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된 ‘근대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군산시는 수탈과 저항에 대한 식민지의 역사의 사건들과 이미지들을 재현한 ‘근대 공간’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근대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 일본 제18은행의 부속건물에 재현된 안중근 의사 여순감옥 재현관은 일제강점기 항일과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상징화 되어있다. 또한 원도심의 군산항쟁관에는 김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와 함께 군산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100년이 넘는 일본식 가옥으로 복원된 장소에 재현되며 식민지의 억압받고 부당한 역사에 저항하는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소와 경관로와 탐방로로 조성된 거리에는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태극기 탁본체험을 비롯해 태극기 퍼즐 맞추기, 태극기 바람개비와 같은 체험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태극기는 군산의 ‘근대문화’가 수탈과 억압만 있었던 것이 아닌 저항과 항일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최상의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군산시의 이러한 외세에 대한 저항은 고려시대 최무선이 외세를 물리친 진포대첩의 활약까지 거슬러 올라가 진포해양 테마공원에서 퇴역한 육·해·공군의 퇴역장비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해양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

두 번째, 군산시는 상징적인 근대건축물을 활용해 이국적 풍경의 ‘근대문화’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쌀 수탈을 목적으로 발달된 도시로 항구를 중심으로 세관, 금융기관, 산업시설물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내항 일대에 남겨진 근대건축물들은 원도심에 비하여 건물의 규모와 외관의 형태가 남다르다. 내항 일대에는 1908년에 세워진 구 군산 세관을 비롯해 1920년대 서양식으로 모방된 근대건축물인 구 조선은행, 구 일본제 18은행

과 적산가옥의 건축물들을 복원해 건축관, 박물관, 미술관 등 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근대 공간’으로 재생하였다. 내항에 새롭게 건립된 근대역사박물관은 기존의 박물관과 차별화된 근대라는 특정시기를 재현하여 관광객들에게 ‘근대화’ 이미지가 각인되도록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근대미술관과 근대역사박물관 사이에 일본식 가옥을 복원하고 일본식 정원으로 조성된 경관은 관광객들에게 이국적 풍경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또한 원도심의 역사거점 집중화지역에 조성된 일본식 숙박체험관인 여미랑을 비롯한 두 개의 블록이 일본식가옥으로 집중적으로 복원·재현되며 만들어진 공간 또한 이국적 풍경의 이미지로 생산되었다.

내항 일대의 근대건축물은 세관, 금융기관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서양식을 이식한 근대건축물이, 원도심의 근대건축물은 히로쓰가옥과 같은 일본식 가옥의 건축형태를 보여주는 근대경관으로 이국적 풍경의 모습을 보여준다. 원도심에서 이국적 ‘근대화’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는 것은 건물의 입면과 간판정비를 통해 만들어지는 근대풍의 파사드 경관 조성이다. 파사드는 일본식 건물을 모방한 듯한 갈색 목재를 이용해 근대건축물이든 현대식 건축물이든 상관없이 일본식 거리를 재현하고 있다. 보드리야르가 말한 하이퍼 리얼리티는 또 다른 형태의 리얼리티이며 모든 사물을 상품으로 변화시키며, 상품은 기호처럼 끊임없이 순환되는 문화현상은 이 곳 군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근대건축물의 복원과 재현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과 장소에서 ‘근대화’의 기호가 치가 선택적으로 생산되며 상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시간여행마을로 떠나는 ‘근대화’ 이미지 생산이다. 시간여행에는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1930년대와 1970-90년대 가까운 시간의 소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군산시는 일제강점기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1930년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근대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 근대역사박물관내 ‘1930년대 속으로’ 들어가는 근대생활관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시관이며 다양한 근대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Hello, Modern!’과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테이블의 디자인, 그리고 모던걸, 모던보이의 캐릭터들은 식민지의 과거를 떠올리기보다는 과거, 추억,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방영된 드라마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근대화’ 이미지들이다. 특히 군산시간여행축제에서 이러한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한다. 수탈과 저항은 근대복장 퍼레이드나 드라마와 소설 속 인물들을 소환해 미션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놀이와 오락을 통해 ‘근대화’를 재현하고 상품화한다. 문화제 야행축제 또한 추억과 낭만을 강조하며 ‘근대화’를 생산하고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 2022>

그림 1. 군산의 시간여행마을 이미지

시간여행은 일제강점기의 1930년대뿐만 아니라 근래의 문화까지 소환해 ‘근대문화’ 안에 포함하여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 경암동 철길마을은 철길추억여행이라는 이미지로, 신흥동 말랭이마을은 1970-80년대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근대마을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 두 장소는 일제강점기 가난한 조선인 마을과 피난촌 마을이라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사라져버린 추억 속에 남아있는 장소들을 재현하고 과거의 시간을 소환하고 있다. 이처럼 군산시는 역사경관을 상품화하는 데 노스텔지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국적 풍경의 노스텔지어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상상적 노스텔지어를 경험하게 하고 가까운 과거의 장소들은 경험한 것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상품화하여 군산의 ‘근대문화’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



<출처: 연구자 촬영, 2022>

그림 2. 신흥동 말랭이마을

4. 관광객의 ‘근대문화’ 체험과 소비, 재생산되는 이미지

1) 실제 현장과 온라인의 ‘근대문화’ 체험

군산으로 떠나는 관광행위는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체험소비이다. 군산

시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근대화’를 체험하는 공간과 장소들을 생산했다면, 관광객은 어떤 장치와 과정으로 ‘근대화’를 체험하고 소비하는지, 그리고 체험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근대화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관광객들은 타도시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 SNS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그 지역의 대표 명소를 찾아간다. 실제현장에서 이루어진 체험은 미디어 통해 이미지가 재생산된다. 이때 체험은 군산시가 구축한 ‘근대화’를 수용하거나, 관광객의 선택에 의해 다른 공간과 장소를 선호하기도 한다. 관광객들에게 ‘근대화’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근대건축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공서, 금융기관, 행정기관, 일본식 가옥 등을 토대로 근대시기의 만들어진 공간과 장소를 통해 체험한다. 만들어진 근대경관은 체험하는 방식에 따라 근대의 의미가 다양하게 표출된다. 이 경험 안에는 식민지 시기의 수탈의 역사, 항일의 역사, 근·현대가 공존하는 이국적 풍경의 도시, 노스텔지어를 통해 여과시킨 기억 등으로 다양한 근대를 인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실제현장과 온라인에서 ‘근대화’를 체험하고, 소비하며, 재생산하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중 많은 사람들은 먼저 군산의 근대역사박물관을 방문한다. 박물관의 ‘근대생활관’과 ‘독립영웅관’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전시실이다. 박물관에서의 ‘근대화’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재현 포토존, 근대교육공간의 현장체험, 인력거체험, 태극기 탁본체험과 같은 체험들로 구성되어있다. 박물관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가족단위 방문이 많은 편인데,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식민지를 상징하는 장소에 대한 관심은 근대미술관 부속건물에 마련된 안중근 의사의 여순감옥 재현관과 군산항쟁관의 방문으로 이어진다. 안중근 의사의 실사와 함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문장아래 사진을 찍으며 식민지의 억압과 부당한 역사를 되새긴다. 군산항쟁관에서는 고문 받는 장면이 재현되고, 백범 김구·유관순 열사·윤봉길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은 군산의 항쟁과 저항의 역사를 경험하며, 가상체험공간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그려져 있으며 선이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한다.

식민지의 역사를 재현한 공간에서는 일제의 억압과 수탈, 항일과 독립운동의 ‘근대화’를 체험하는 반면, 이국적 풍경을 지닌 공간으로 체험하기도 한다. 내항에 밀집되어 있는 근대건축물은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해 구 군산세관의 이국적인 건물외관을 포함해 서양식으로 모방된 일본식 건축물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건축물외관의 형태, 크기, 그리고 독특한 공간구성을 통해 이국적 풍경을 지닌 군산항구의 이미지를 체험

하고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수탈과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한 원도심의 일본인 가옥인 히로쓰가옥은 신흥동 일본식가옥으로 명칭이 바뀌며, 근대의 이국적 분위기를 가진 일본식 가옥으로써 체험한다. 역사거점 집중화지역에 재현된 일본식 숙박체험관인 여미랑과 일본식 정원에서 관광객들은 “교토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서양식을 모방한 근대건축물에서 이국적 풍경으로 ‘근대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초원사진관과 경암동 철길마을, 빈해원의 경우는 인터넷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홍보되고 영화배경으로 촬영된 장소로 군산에서 꼭 가 봐야 되는 핫스팟으로 인식하고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처럼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은 군산시가 생산한 식민지를 상징하는 근대의 시간과 시간여행과 같은 과거의, 오래된, 먼 이국적 분위기를 가진 근대의 이중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체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현장에서 경험한 ‘근대문화’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다시 ‘근대문화’ 이미지로 재생산되고 소비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온라인에서의 체험 양상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온라인에서의 ‘근대문화’ 체험 장소는 실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장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점은 관광객들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상황을 재현한 공간에서는 “몽클함”과 “애국심”과 같은 반응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즉 식민지의 수탈과 저항을 상징하는 공간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 억압과 수탈의 역사, 아픈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집합기억의 감정을 재생산하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는 방문한 장소에 대한 서술방법과 ‘근대문화’ 이미지를 재생산해내는 양상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블로그에서는 주로 근대문화유산이나 박물관과 같은 역사체험방문을 통해 개인의 경험, 역사적 의미 등을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하는 문장과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문장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는 편이다. 그리고 체험활동의 경우 방문한 곳에 대한 장소성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그리고 체험의 과정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서술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블로그는 인스타그램에 비하여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어있으며, 군산의 방문과정과 장소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다.

“근대역사라 하면 역사 교과서에도 몇 장 밖에 없는 하지만, 제대
로 배우고 잊어서는 안된다...근대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군

산, 그러나 단순히 스팟만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시절 우리네
 가 겪었던 아픔을 느끼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⁶⁾



<출처: 네이버 블로그, 딸기아빠, (2022.04.29. 검색), 2015.12.11.>

그림 3. 블로그의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근대생활관 체험내용

반면에 인스타그램에서는 군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과 감성적인 사진 잘나오는 곳, 독특한 이국적 풍경이 부각되는 곳의 이미지들이 많이 소비되는 편이다. 그리고 근대역사공간으로 조성된 공간내부에 대한 체험은 블로그와 비교해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인스타그램은 사진 중심의 파편화되고 감각적인 이미지들로 체험되고 있는데 근대 공간의 역사적 내용보다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나 예쁜 장소로서 분위기, 인상, 취향을 잘 드러내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근대화’를 체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히로쓰가옥과 여미랑, 초원사진관이 모여 있는 원도심을 방문한 관광객은 ‘시간여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군산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시간여행축제를 통해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도 많지만 원도심의 건축물과 거리경관의 모습을 통해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마을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즉 인스타그램에서 보여 지는 ‘근대화’는 레트로이며, 사라지거나 경험하기 힘든 풍경과 오래된 건물들을 과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식 인테리어가 강조된 이국적 장소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오래된 골목과 근·현대 건물들이 뒤섞여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을 ‘근대화’로 여기고 체험하고 있다.

“군산 근대 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흑백으로 찍으니 어떤가요?
 정말 1930년대 군산의 모습을 담아낸 것 같지 않나요? 또 군산 근대
 거리 내부에 영화타운도 있고, 빅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⁷⁾

6) 네이버 블로그, 난쭈, (2022.02.02. 검색), 2014.04.14.

7) 인스타그램, archaeoscope_, (2022.02.15. 검색), 2022,02,11.



<출처: 인스타그램, archaeoscope_, (2022.02.15. 검색), 2022.02.11.>

그림 4. 군산 원도심 전경과 여미랑 일본식 숙박체험공간

최근 Z세대라고 소개하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군산의 근대거리를 흑백으로 촬영해 1930년대 군산의 근대거리를 상상하고 실제로 유사한 시대경험을 체험하고 SNS를 통해 공유한다. 보드리야르가 주장한 것처럼 실재는 조작적인 것으로 오늘날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가짜로 재현된 일본식 가옥에서, 카페에서 골목에서 ‘근대문화’를 체험하며 진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즉 인스타그램에서 중요하게 작동되는 체험 소비는 경험하지 못한 공간에 대한 새로움, 낯선 이국적 풍경, 군산에 왔으니 꼭 가봐야 하는 장소들의 체험이 SNS에 사진을 올리는 목적으로 비슷한 ‘근대문화’ 이미지들이 체험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소비, 재생산되는 ‘근대문화’ 이미지

실제현장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객들의 ‘근대문화’ 체험 양상을 토대로 소비되는 ‘근대문화’ 이미지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관광객들은 근대건축물을 식민지 잔재가 아닌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국적 경관의 ‘근대문화’ 이미지로서 소비된다는 것이다. 군산의 ‘근대문화’의 이미지는 관광객들에게 일상 공간과는 벗어난 비일상적인 분위기와 심미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겨준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근대문화’를 상징하는 군산을 방문해 ‘과거’의 시간을 탐미하고 ‘근대문화’라는 기호를 체험하고 소비한다. 건축물의 외관을 복원하고 경관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건축물은 건물이 지니고 있는 공간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 있고, 그 공간에 담겨있는 의미나 가치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공간들

이 개별 공간이 아닌 군집으로 밀집되어 경관이 구성될 때 상징성과 장소성이 강해진다면, 군산의 근대경관이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군산 내항 일대의 근대건축물들은 식민지 자원수탈과 침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 일본인 조계지였던 원도심에 형성된 밀집된 근대건축물들은 사람들에 의해 건물이 확장되거나 변형되면서 오늘날 군산의 근대경관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도시경관은 도시재생사업과 정책에 의해 ‘근대문화’ 이미지를 가진 도시로 변모하게 만들었고, 근·현대의 시간이 겹쳐져 상징화된 ‘근대문화’는 이국적 경관으로서 다양한 층위의 이미지로 소비되고 재생산되었다.

“좀 새로웠어요. 요즘 많이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약간 조금 진짜 딱 책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보니까 많이 새롭기도 했고, 요즘에는 아파트나 고층빌딩 말고는 별로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양식 같은 게 완전 새로우니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일단 외관 같은 경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느낌이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B, 10대, 여)

‘근대역사문화지구’를 둘러본 관광객들은 일상적으로 봐왔던 도시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도시 이미지로 군산을 소비한다. 면담자 B는 군산 원도심의 격자형 가로망에 준비하게 늘어져있는 근대건축물들과 오래된 골목의 풍경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다. 새롭고 색다르게 보여 지는 것은 기존에 경험한 도시의 이미지와 비교해 낯설거나 이질적인 이미지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장소를 경험하는 것은 여행자의 입장으로 멀리 마을을 바라보는 것(렐프, 2017: 116)처럼 군산의 근대문화 이미지들이 획일적이지 않고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은 여행자로서 외부적 시선의 입장에서 이국적 경관으로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근대와 관련된 공간과 장소들이 시간여행마을과 같이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거나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며 즐거움과 놀이의 장소로써 감성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감성적 이미지 소비는 1930년대를 강조하는 군산시간여행마을의 이미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군산의 원도심 거리를 걷다보면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 1930’s’와 같은 문구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타임테이블을 상징하는 중절모를 쓴 복고풍의 시계모양의 남·녀 캐릭터 이미지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1930이란 숫자는 군산이 강조하는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군산시가 근대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시간여행축제와 근

대역사박물관,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안내 설명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군산시간여행축제의 경우 시간여행 홍보물에서 1930이란 숫자가 매년 등장하고,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경우 근대생활관 전시장 입구에는 “1930년 시간여행 속으로...”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있으며 1930년대의 군산을 재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도심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시간여행마을’로 군산의 거리를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의 영향이 가장 크며,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시간여행’이라는 홍보이미지와 단어를 통해서이다. 사람들에게 193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많은 면담자들이 ‘일제강점기’, ‘근대’, ‘과거’, ‘추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1930을 상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군산항을 통해 엄청난 자원수탈이 일어났다는 것과 수탈전진기지로서 군산의 번영했던 시기를 상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설과 드라마, 그리고 영화를 통해 학습된 근대의 이미지가 먼 과거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근대의 시기를 표상하고 있다. 특히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시간이 멈추어 버린’이라는 어구를 많이 사용해 군산을 표현하고 있다. 근대를 재현한 군산의 이미지는 과거의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처럼 현대도시와 차별화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군산이 강조하는 1930년대는 옛날, 과거, 추억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시간여행이라는 이미지는 식민지를 상징하는 억압, 수탈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탈각되어 추억이나 상상의 노스텔지어로 치환되어 소비되고 있다.

1930이라는 숫자를 활용해 시간여행마을로 감성마케팅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1970-90년대 추억을 소환해 상품화된 근대 공간이 감성적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는데, 그곳은 경암동 철길마을과 신흥동 말랭이 마을이다. 경암동 철길마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실제로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로 옆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TV나 영화촬영지로 소개되면서 부터이다. 일제강점기에 물자수송을 위해 만들어졌던 철로를 중심으로 1970년대 마을이 형성되었고, 철로주변의 형성된 마을이 현재는 관광지화 되며 1970-1980년대의 옛 추억을 소환하는 장소로 재탄생 된 것이다. 세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암동 철길마을 이미지를 소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추억’을 소환해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것이다. 노스텔지어가 하나의 상품화가 되어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새로움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경험한 세대에게는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는 추억을 소환한다는 것이다.



<출처:연구자 촬영, 2022>

그림 5. 경암동 철길마을

신흥동 말랭이마을도 경암동 철길마을과 유사한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장소성은 희미해지고 실제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것은 1970-80년대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다. 말랭이마을은 일제강점기 가난한 조선인들이 산비탈에 모여 살던 장소가 해방이후 피난민들이, 1970년대에는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였다. 도시재생을 통해 ‘근대마을’로 홍보되고 1970-80년대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벽화와 추억전시관, 자유극장과 같은 근·현대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마을 주변의 일본식 가옥으로 재연된 게스트하우스나 주변의 오래된 상점, 좁은 골목들에서 관광객들은 ‘시간여행 마을’로 또는 ‘근대마을’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근대는 조금 오래되거나, 아주 오래된 과거로 바라보며 소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핫스팟과 인증샷으로 소비되고 재생산되는 이미지이다. 타 도시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거나, 뜻밖의 방문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이용해 정보를 공유한다. 소위 핫스팟과 인증샷을 남겨야하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고 미리 간접적으로 여행지를 경험한다. 실제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이 올리는 온라인 리뷰 중 긍정적인 리뷰는 관광지 방문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김은미, 2017: 100). 이처럼 관광객들은 핫스팟,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곳을 검색해 방문한다. 그리고 관광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텍스트의 리뷰들은 살펴보면 유사한 경험과 이미지들로 재생산되고 있다.

관광객들이 군산을 방문해 핫스팟과 인증샷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공간과 장소를 살펴보면, 군산이 초기 ‘근대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설정한 관광명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에 진행된 군산시간여행축제에 홍보의 장소와 2013년 처음 개최된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장소를 비교할 때 내항 일대의 문화벨트지구에서는 구 군산세관 본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장미공연장, 구 일본 제18은행(현 근대미술관), 구 조선은

행(현 근대건축관), 부잔교, 진포해양 테마공원의 핫스팟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원도심 중심의 역사경관지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2013년 시간여행축제 안내지도에는 초원사진관, 이성당, 신흥동 일본식 가옥, 고우당, 동국사, 구 부윤관사,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해망굴 등이 홍보되어 있는데, 이와 비교해 2020년 안내지도에는 구 부윤관사를 제외한 2013년 축제 안내지도에 홍보된 모든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추가된 곳은 이당미술관, 구 전주지방방법원 군산지청관사, 근대쉼터, 구 시청광장, 군산항쟁관, 일제강점기 역사관, 월명동 주민센터 등이 있다.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진행되면서 군산시는 새롭게 근대건축물을 복원하고 정비하며 문화예술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가 핫스팟이라고 추가하며 홍보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면 구 군산시청이나 구 군산법원과 같은 식민지를 상징하는 근대건축물, 일본 관료들이 거주했던 일본가옥, 그리고 수탈과 항일을 강조하는 전시공간들로 식민지의 기억을 소환하는 장소들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과 온라인에서 소비되는 핫스팟과 인증샷의 대부분은 초기 근대문화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과 장소들의 이미지가 소비되는 것을 파악하였다.

5. 기억의 이중성과 혼재성

1) 지역민의 이중적 기억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억은 그 의미와 맥락들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군산의 ‘근대문화’는 식민지 역사 사이에서 성찰과 의미를 되새기고 있으며, 과거의 사건들은 현재의 시점으로 끊임없이 소환하고 있다. 군산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재 정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근대건축물을 복원하거나 일본식 가옥을 재현해 ‘근대문화’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군산시는 근대역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였고, ‘근대문화도시 군산’이라는 상징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군산의 ‘근대문화’를 찾아 방문하고 있다. ‘근대역사문화지구’가 조성되기 전 지역민에게 군산은 식민지 잔재가 남아있는 도시이며, 화교들의 삶의 터전으로 함께 공존했던 도시였으며, 미군들의 유흥과 소비가 활발했던 원도심과 서해안의 산업

단지과 함께 항구도시, 산업도시 군산을 기억한다.

군산에는 근대문화 이외에도 해양문화와 관련된 역사 유적지와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섬 문화 또한 관광지화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가 그 많은 역사자원 중 식민지의 남겨진 건축물을 관광화한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군산의 ‘근대문화’는 군산에 거주하며 경험한 기억들의 상당 부분들을 사라지게 하거나 배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산의 지역민은 ‘근대역사문화지구’가 형성되기 전 항구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의 이미지로 군산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역사의 ‘과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근대문화’의 관광 상품화는 지역민에게 또 다른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한국의 수많은 역사적 사건 중 식민지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부정적인 인식들이 기저에 깔려있는데, 식민지의 부정적인 인식들은 군산의 ‘근대문화’에 대한 이중적이고 혼재된 기억의 양상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근대 건축물은 ‘근대문화’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 공간’으로 조성된 곳에서 우리는 식민지 역사에 대한 기억이 재소환 되기도 하며 재구성되기도 한다. 내항 일대에 조성된 근대문화유산들은 지역민에게도 역사적, 교육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며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민의 일부는 식민지를 상징하는 근대건축물들이 군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아래의 면담자처럼 이전에 먹고사는 문제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부정적인 식민지의 역사가 현재는 ‘근대 역사’로서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초창기에는 조금 일제 거시기인디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역사가.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역사 이야기야’ 그랬거든요. 근데 내 역사가 있듯이 다 역사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대 역사라는 것이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S, 60대, 여)

“여기는 좋은 추억이 아니죠. 가슴 아픈 추억이죠. 일제 시대 잔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야. 일본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없는데 그래도 옛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오니까 나쁘진

않지”(M-2, 60대, 여)

‘근대문화’ 이미지는 식민지의 건축물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근대는 식민지의 부정적인 기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새롭게 재구성된 근대공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되는 점에 대해 지역민들은 다르게 바라본다. 즉 지역민은 일제 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소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식민지 도시라는 부정적 인식은 오늘날 기억 매체에 의해 새로운 문화적 기억을 생성하기도 한다. 지역민이면서 관광객이라는 입장에서 ‘근대문화’는 타 도시에서 보기 힘든 차별성을 가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바라보고,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식민지 건축물이 상품화되고 개발되면서 관광지로써 소비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감추고 싶은 식민지 역사가 관광 상품화로 활용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양가적 감정을 동시에 느끼며 군산의 ‘근대문화’를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에게 군산은 근대문화도시로 떠올리게 하는 반면 멈추어 있는, 또는 변하지 않는 도시로 기억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2009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군산 내항과 원도심은 근대건축물의 복원과 정비가 이루어지고 도로가 정비되면서 물리적 경관변화가 크게 일어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있거나 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중적인 기억이 작동되고 있다. 왜냐하면 원도심이 일련의 사업들을 통해 커다란 물리적 변화가 일어났지만 지역민에게 변화된 원도심의 경관은 일상적으로 봐왔던 익숙한 풍경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산의 원도심을 방문한 관광객이 소비하는 경제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10년이 넘는 짧은 기간 동안 군산은 급속도로 빠른 변화 과정을 겪었지만 군산의 지역민은 군산은 변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도시로 인식한다.

“변화들이 느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건 쪽 어릴 때부터 봐 왔었으니깐. 그리고 그 거리는 있던 거리를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고치고 이제 한마디로 보기 좋게 만들어진 것뿐이라고 생각을 해요...눈에 크게 띄거나, 아름답다거나, 예쁘다거나 그런 것 보다는 그냥 하나의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가옥들이 있었던 거리구나. 그런 이미지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게 변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F-1, 50대, 남)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또한 군산을 시간이 멈추어 있는 도시로 인식하지만 지역민이 인식하는 멈추어 있는 도시와는 다른 또 다른 ‘멈춤’의 기억인 것이다. 식민지 시기 근대도시로 계획되며 내항과 원도심 일대의 거주공간이 일본인과 조선인의 이중적 분화가 일어난 것과 같이 현재 근대화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과거와 비슷하다. 군산의 ‘근대화’는 일본인 조계지였던 내항과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개발되었고 ‘근대역사문화지구’를 벗어난 지역은 쇠락한 원도심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원도심은 ‘관광도시’로서 근대문화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지만, 관광지 너머의 ‘유령도시’를 떠올리기도 한다. 즉 지역민에게 근대화도시가 시간이 멈추어 있는 도시로 여기는 것은 학창시절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익숙함에서 느껴지는 변하지 않는 멈춤과 여전히 변화가 있어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후진 동네나 유령도시를 떠올리는 멈춤에 대한 기억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2) 외부관광객의 혼재된 기억

역사와 기억은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며 과거를 기록, 정리, 그리고 재현하며 현재의 시간으로 끊임없이 소환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 기념물은 권력 주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역사적 사건들을 기념화한다. 기념에는 역사적 서사, 의례, 그리고 축제와 같은 다양한 장치와 상징들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기억이 형성된다(전진성, 2009: 190). 군산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를 재현한 기념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억압과 수탈에 저항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사건들을 소환해 재구성하고 있다. 타 지역에서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의 기억을 살펴보면 ‘근대화’에 대한 기억은 ‘근대역사문화지구’가 형성된 이후의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관광객 대부분은 ‘근대화도시’의 이미지가 형성된 후 군산을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객의 기억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수탈과 항일에 대한 기억이 즐기되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로 기억되며, 다른 하나는 근·현대가 섞인 이국적 경관을 가진 도시이미지와 재미와 오락을 통한 추억을 소환하는 ‘근대화’로 기억한다는 점이다. 식민지의 수탈과 억압 그리고 저항과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 재현된 공간에서 관광객들은 시대의 아픔과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다. 관광객들은 근대라는 특정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거나 자료를 관람하는 공간에서 근대 역사가

슬프고 아픈 억압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되새긴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집단 기억은 학교교육을 통해 주로 생산되고 축적되는 경향을 띠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역사교육을 통해 배운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설배환, 2018: 50). 면담자 L-1과 같이 일제에 의해 자행된 수탈과 억압을 재현한 공간에서 식민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며, 역사교육의 집단기억이 소환되는 것이다.

“군산특징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제일 많이 살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건물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거기 일본 감옥소 근대항쟁관이라는 곳에 감옥에서 고문 받는 거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열이 나서 못참겠더라구.”(L-1, 50대, 여)

“물론 근대문화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있지만 저처럼 그냥 역사 생각 안 하고 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즐기지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군산항쟁관) 하나씩 있으면 ‘아 내가 지금 너무 즐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즐기되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하니까요!”(I-1, 20대, 여)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역사의 시기라고 기억한다. 면담자 J-1은 군산이 근대 이미지로 소비되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역사적 굴욕감이나 죄책감을 동시에 가지고 관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역사를 보여주는 군산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식과 관광지이기 때문에 ‘즐거야 된다’는 혼재된 심리적 감정들의 갈등양상이 보여 진다. 즉 근대 역사를 가진 군산은 단지 여가를 보내는 데 있어 재미와 즐거움만을 허락하지 않으며,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저항이 소환되며 아픈 역사의 기억이 강화되는 것이다. 면담자 I-1은 군산을 돌아다니며 즐기고 있는 데 근대미술관의 안중근 의사 여순 감옥 재현관, 또는 군산항쟁관과 같은 공간에서 즐거움을 부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면담자 I-1과 R-1처럼 ‘즐기되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하니까요’ 또는 ‘박물관화는 좋지만 가슴 아픈’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느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군산시는 수탈과 저항의 관점에서 근대의 이미지를 공간에서 상징화하고 있고, 관광객들은 ‘근대문화’ 이미지를 소비하며 관광지의 즐거움과 식민지 역사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은 서양식을 모방한 근대건축물과 원도심의 오래된 근·현대건축물과 일본식 가옥에서 근대와 현대가 뒤섞인 이국적 풍경을 떠올린다. 과거 노스텔지어는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나타냈지만 “과거가 낯선 나라라면 노스텔지어는 과거를 가장 활기차게 보여주는 관광산업의 낯선 나라”라고 주장한 로웬델(2006: 44)처럼, 오늘날 노스텔지어는 지나간 과거를 재현하는데 있어 사람들의 정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노스텔지어는 지역의 스토리를 개발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를 통해 지역을 상품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군산의 경우 관광객들이 군산의 근대경관을 이국적으로 여기도록 하는데 노스텔지어가 작동되며 여기에는 여러 층위가 뒤섞여 있다. 그 중 하나는 내항 일대의 서양식 건축물이나 서양식을 모방한 근대건축물과 원도심의 일본식 가옥에 대한 이국성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건축물이 서양식이든, 일본식이든 상관없이 전통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국적이라고 인식한다. 면답자들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면 군산이 이국적 풍경을 가진 도시로 기억되는 이유는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기도 하며 전통적인 거리풍경도 아니기 때문이다. 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낮은 건물들과 근·현대의 건물이 뒤섞이며 일본식 가옥을 재현한 원도심의 이질적인 풍경은 이국적 경관을 가진 도시로 기억하게 한다.

그리고 관광객은 ‘근대화’에 대하여 이국적 풍경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까지 문화를 포함해 하나의 ‘과거’로 인식하기도 한다. 즉 ‘근대화’ 안에서 1930년대, 1970년대, 1990년대 시대를 상징하는 문화들의 과거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봄으로써 근대역사경관을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마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면답자 U-1는 “근대역사거리 했을 때 떠오르는 건 모자 이렇게 쓰고 화려한 옷 입고 근대복장 같은 거 입고 찍은 사진들이 기억”(U-1, 30대, 여)나는 것처럼 시간여행축제에서 체험한 근대복장은 근대의 노스텔지어로 소비되고 있다. 또한 노스텔지어는 현재 유행하는 ‘레트로’, ‘뉴트로’의 문화현상 속에서 소비문화 트렌드를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노스텔지어는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는 요소이다. 특정시기가 아닌 과거의 노스텔지어가 결합되며 역사, 추억, 기억은 하나의 향수, 추억이라는 의미로 기억이 재구성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교복체험이 이루어지고 경암동 철길마을에서는 교복체험은 확장시설을 떠올리는데, 여기에는 ‘추억 쌓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두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은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

하여 새로운 경험으로 접근하고 이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오늘날 노스텔지어는 과거의 불행했던 또는 무서웠던 기억들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힘들고 불행했던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유희와 즐거움의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킨다(로웬달, 2006: 51). 즉 지난날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대하여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하고자 한다. 이처럼 군산에서 보여주는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과거는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가 더 이상 고통스럽고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재미와 즐거움으로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식민지 역사는 경험하지 않은 과거이지만 미디어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집합기억을 소환한다. 이것은 식민지 역사에 대한 부정적 기억들은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대문화’의 이미지들이 재소환 되고 재구성되며, 이국적이라는 감정으로 ‘일본식’ 또는 ‘경험하지 않은 새로움’으로 바라보고 있다. 식민지 역사에 대한 수탈과 항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만들어진 기억은 이중적 기억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관광과 매개되어 역사를 잊지 말아야하고 즐기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해야하는 혼재된 기억으로 구성되고 있다.

6. 결론

‘근대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군산은 1899년 개항한 도시로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거점항구로 식민지 전진기지로서 급격한 도시성장이 이루어진 곳이다. 내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각국조계지는 근대도시계획의 원형으로 해방이후에도 군산의 중심지로써 기능하였고, 원도심에는 당시에 형성된 도시 공간 구조와 건축물들의 원형이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여느 도시개발과 마찬가지로 군산 또한 1990년대 행정기관들이 신시가지로 이전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 서해안 개발에 밀려 원도심은 방치된 채 공동화 현상으로 쇠락해져갔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2001년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재 제도는 군산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제 시행에 의해 군산시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근대건축물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등록문화재제도 또한 근대건축물이 식민지 잔재가 아닌 보존하고 활용해야 되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식민지를 떠올리는 근대건축물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식되면서 활용방안들

이 검토되고, ‘근대문화도시’로 군산의 이미지를 강화해갔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군산시는 국가정책과 지자체 사업들을 결합하여 ‘근대문화’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근대역사경관이 조성되기 전 지역민에게 근대건축물은 일제 잔재라는 인식과 함께 식민지의 부정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식민지 도시라는 인식과 함께 지역민에게 군산은 항구도시이면서 산업도시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현재에는 ‘근대문화’의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는 군산이지만 지역민에게 원도심은 화교들이 살고 있었으며, 미군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소비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억은 ‘근대문화’ 이미지가 강화될수록 희미해지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근대건축물들을 활용해 ‘근대문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광과 매개된 역사자원의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근대문화’ 이미지는 군산 내항 일대와 원도심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2008년 ‘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내항 일대의 근대건축물들이 복원되고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2011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개관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문화유산’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전유되어 활용되었다. 식민지 수탈을 상징하는 금융기관, 행정기관의 근대건축물들은 전시공간과 함께 ‘수탈과 저항’을 상징하는 ‘근대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무엇보다도 원도심의 일본식 가옥을 집중적으로 복원하고 재현한 공간은 건축물 간판과 입간판 정비와 함께 ‘근대풍의 파사드’ 이미지를 생산하고, ‘근대문화’ 이미지를 강화해갔다. 또한 식민지를 상징하는 1930년대의 군산은 ‘수탈과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과거’의 시간으로 회귀하는 시간여행마을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한다. 원도심의 거꾸로 가는 시계, 모던 걸·모던 보이를 상징하는 근대복장의 캐릭터, Hello! Modern, 1930은 시간여행을 강조하며 ‘근대문화’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식민지 역사를 드러내는 문학작품과 영화들은 ‘근대문화’의 장소성으로 재소환되며 상품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군산시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사건이나 장소들과 함께 근대 외의 장소들, 즉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장소들이 포함되어 상품화 되고 있다. 또한 시간여행축제는 과거로 떠나는 여행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으며, 근대문화유산을 토대로 만들어진 문화재야행은 밤과 낭만이 결합된 ‘근대문화’ 이미지로 생산되고 있다. 수탈과 억압의 역사는 도시재생사업에 의해 새로운 장소들과 공간들로 재탄생되고, 근대문화상품으로 뒤섞여 만들어지고 있다. 식민지를 상징하는 근대건축물들은

초원사진관, 경암동 칠길마을, 신흥동 말랭이마을과 같은 공간과 장소를 동일 선상에 놓고 바라본다. 따라서 ‘근대문화’를 기획하는 군산시의 실천은 장소성을 무화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근대’는 군산시가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요소이다.

‘근대문화도시 군산’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도시이미지는 과거 수탈과 억압을 상징하던 식민지도시의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근대문화’라는 새로운 기호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관광객들은 군산을 방문하며 체험한 것들을 온라인에 재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 유사한 이미지들을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현장에서와 온라인에서 체험하는 ‘근대문화’ 소비양상을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드러난다. 실제현장에서 사람들은 식민지 역사를 재현한 공간에서는 식민지의 억압과 부당한 사실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며 공식적 기억들이 재소환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다. 또한 서양식을 모방한 근대건축물과 일본식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재현공간에서는 이국적 공간으로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국적 풍경은 타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근대경관과 함께 근·현대가 뒤섞여 있는 도시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근대문화’로 여기고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의 블로그에서는 식민지 역사에 대한 공간과 의미에 대한 서술과 함께 여행의 흐름을 보여주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에서는 군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과 독특한 이국적 풍경이 부각되는 소위 ‘예쁜 사진’이 나오는 장소들 중심으로 감각적이고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소비되고 있는 편이다.

군산의 ‘근대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실제현장과 온라인의 체험을 통해 소비되고 재생산되는 ‘근대문화’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첫째, ‘근대문화’는 이국적 경관의 이미지로써 소비되는 경향이 크다. 둘째, 1930년대의 시간여행마을과 1970-90년대 가까운 과거까지 포함해 소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성당, 초원사진관, 신흥동 일본식 가옥과 같은 핫스팟과 인증샷으로 알려진 장소들이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군산시는 식민지를 상징하는 공간과 장소들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근대문화’의 공간과 장소들은 초기 근대문화 조성사업에 만들어졌던 공간과 장소들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관광객들은 타 도시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핫스팟을 검색하고 이렇게 공유된 정보는 관광객들이 비슷한 장소나 공간을 경험하게 하고 유사한 이미지들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군산시의 ‘근대문화’ 생산에 대한 실천이 장소성을 무화하는 행위인 반면, 관광객들은 일제강점기와 함께 최근의 과거까지

함께 소비함으로써 시간성을 무화하는 행위로 실천하고 있다.

군산은 현재 ‘근대화’를 표상하는 도시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항구도시, 산업도시로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민지의 역사자원을 활용해 만들어진 근대역사경관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근대도시로서 상징성을 갖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군산이 근대역사문화지구가 조성되면서 어떤 이미지로 인식하고 기억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식민지 역사에 대한 기억은 부정적인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따라서 일제 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근대 공간’에서 ‘수탈과 억압’과 ‘항일과 독립’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의 역사교육을 통한 공식적 기억들이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있다. 지역민은 소환된 식민지 역사는 부정적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중적 태도를 취한다. 또한 근대화도시로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산은 멈추어 있거나, 변하지 않는 도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관광객은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만들어진 식민지 역사에 대한 기억이 재소환 되지만, 관광과 매개된다는 점에서 즐기되 잊지 말아야 하는 양가적 감정에 부딪힌다. 즉 수탈과 억압이라는 식민지 역사의 인식과 함께 재미와 즐거움을 함께 해야 한다는 혼재된 기억을 떠올린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근대역사경관은 시간여행마을로 변모하여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간들을 ‘과거’로 상품화함으로써 근대와 현대가 섞인 이국적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서 과거의 역사, 기억들은 상품화된 노스텔지어와 결합되어 다양한 기억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군산의 ‘근대화’는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별반 다르지 않은 ‘과거’로 소비하고 있다. 즉 관광객은 1930년대 조성된 경관을 상상하며 현재 1970-80년대의 낙후된 도시경관이 뒤섞여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낯선 상상의 노스텔지어와 함께 혼재된 기억들이 재구성되고 있다. 이렇듯 군산의 ‘근대화’는 도시재생과 관광, 식민지역사와 이국적 경관 사이에서 이중적이고 혼재된 기억의 경합과 함께 불안정한 개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미지 소비는 일상적인 현상이다. 무엇보다도 미디어 매체의 발달은 관광지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빠르고 쉽게 공유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노스텔지어가 결합된 식민지의 문화유산은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공식적 기억을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있다. 그리고 근대풍경의 재현과 낙후된 풍경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상품화는 하나의 과거로 소비하게 만든다. 즉 군산의 ‘근대화’는 기호가치의 소비이며 노스텔지어의 상품화 기제로 작동되고

있다. 식민지 공간이 근대 공간으로 재현되며 만들어지는 의미, 인식의 충돌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혼재된 기억으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논문접수일: 2023. 11. 09. / 심사개시일: 2023. 11. 24. / 게재확정일: 2023. 12. 05.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 김영정 외, 2006, 『근대 항구도시 군산의 형성과 변화: 공간, 경제, 문화』, 한울아카데미.
- 김은미, 2020, 「온라인 리뷰의 감성트렌드를 활용한 관광 핫스팟 예측모형」,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권 4호, 99-111쪽.
- 김종수, 김민영 외, 2009, 『개항 110년 해륙의 도시, 군산의 과거와 미래』, 선인.
- 김중규, 2001, 『군산역사이야기: 고지도와 옛 사진으로 풀어본 군산역사』, 도서출판 나인.
- 렐프 에드워드, 2017,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역, 논형.
- 로웬달 데이비드, 2006, 『과거는 낯선 나라다』, 김종원, 한명숙 역, 도서출판 개마고원.
- 보드리야르 장, 2015,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 설배환, 2018, 「역사교육의 집단기억 만들기과 개인 사이의 간극: 인터뷰 분석」, 『역사교육』, 145권, 33-70쪽.
- 손은신, 배정한, 2018,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구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 46권 4호, 21-35쪽.
- 전재호, 2019, 「한국의 반일(반일)민족주의 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한국과 국제정치』, 35권 2호, 113-147쪽.
- _____, 2020, 「‘식민지 건축 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반일(반일) 민족주의: 일제 잔재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6권 3호, 101-131쪽.
- 전진성, 2009,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스트.
- 최아름, 2020, 「군산과 목포의 장소성 기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전략 비교」, 『인문콘텐츠』, 57권, 91-114쪽.
- 한지은, 2008, 「근대역사경관의 노스텔지어를 이용한 상하이의 도심재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 자료집·보고서

- 군산시, 2000, 『군산개항 100주년 기념 공식보고서』, 군산시.

_____, 2007, 『군산시 문화·관광자원 종합조사 ③, 근대문화의 도시 군산-근대 건축물로 바라본 군산의 모습』, 군산시.

_____, 2009, 『군산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 마스터플랜수립연구보고서』, 군산대학교·경원대학교.

3. 웹사이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www.museum.gunsan.go.kr

군산시청, www.gunsan.or.kr. 문화재청 www.cha.go.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www.much.go.kr

문화재청, www.cha.go.kr

위키백과, www.wikipedia.org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aks.ac.kr

4. 블로그·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난쭈, 2014.04.14. (검색일: 2022.2.2.)

네이버 블로그, 딸기아빠, 2015.12.11. (검색일: 2022.2.2.)

인스타그램, archaeoscope_, 2022.02.11. (검색일: 2022.2.15.)

<Abstract>

**Production of ‘Modern Culture’ Image and Reconstruction of
Memories Utilizing ‘Modern Cultural Heritage’**

Focusing on the Case of Gunsan

Yang, Jiyoung*

This study focused on the image of 'modern culture' consumed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modern architecture with a strong colonial image into modern cultural heritage, and analyzed the intention of the subject producing 'modern culture' and the understanding method of tourists who consume it. Gunsan City is commercializing past times with nostalgia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ourism, and the commercialized image of 'modern culture' is reproducing local history and memories. And as memories of colonial history's exploitation and oppression are combined with the fun and enjoyment of tourist destinations, tourists' memories of 'modern culture' are being reconstructed into an unstable concept, competing with dual and mixed memor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ayers of cultural memory through which meaning is appropriated and reconstructed by analyzing the clashes of meaning and perception and mixed memories encountered in the spaces and images where 'modern culture' is created.

Key Words : Modern Culture, Image, Cultural Memory, Nostalgia, Modern Cultural Heritage, Urban Regeneration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ep. of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BK21 Post Doctor